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

The Longitudinal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on Adolescent Depression: The Sequential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Peer Victimization

1차원고접수: 2026.04.10. 수정원고접수: 2026.05.27. 최종게재결정: 2026.06.21.

홍유정¹ · 한세영²

¹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²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Hong, Yoo Jung¹

Han, Sae-Young²

¹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²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차를 반영한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제15차(중학교 2학년)와 제16차(중학교 3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청소년 1,215명(남 625명, 여 590명)을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Model 6)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사소통이 차년도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둘째,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차년도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차년도 폭력피해경험을 통해서도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차년도 폭력피해경험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사소통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인 내적 자원과 또래관계 위험과 연결되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관련되는 발달적 경로를 형성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청소년, 가족의사소통, 자아존중감, 폭력피해경험, 우울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family communication is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and peer victimization in a time-lagged path model. Data were drawn from the 15th wave (T1: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and 16th wave (T2: third year of middle school)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ncluding 1,215 adolescents (51.4% boys, 48.6% girls) who participated in both waves. Mediation and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were tested using Model 6 of the PROCESS macro for SPSS(Hayes, 2022).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mily communication at T1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t T1, and self-esteem at T1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at T2. Family communication at T1 was also direc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t T2, and peer victimization at T2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t T2. Both self-esteem and peer victimization served as significant mediators, and a sequential mediation pathway through self-esteem and peer victimization was support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amily communication may be linked to adolescent depression through individual psychological resources and peer-related risk experiences.

Keywords adolescents, family communication, self-esteem,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Corresponding to 홍유정(Hong, Yoo Jung)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wisdom.yjhong@ewh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의 우울은 개인의 정서적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약 27% 수준으로 보고되어, 적지 않은 비율의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질병관리청, 2025).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은 일시적인 정서 문제를 넘어, 학업 부적응(이순희, 허만세, 2018), 또래관계의 단절 및 사회적 위축(박병선,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배성우, 2017), 자살 사고 및 시도(조정아, 2009; Abela & Hankin, 2008)와 같은 심각한 적응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에 형성된 우울은 이후 성인기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Fergusson & Woodward, 2002).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 우울이 단일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개인 내적 요인, 가족환경, 그리고 학교 및 사회적 대인관계라는 다층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발달적 상호작용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공은화, 김원영, 2017; 김도연, 정현희, 2023; Rudolph, 2009). 발달정신병리 관점에서도 청소년 우울은 개인의 인지·정서적 취약성과 가족 및 또래관계 경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발달적 결과로 이해된다(Abela & Hankin, 2008). Rudolph, Flynn과 Abaied(2008) 역시 청소년 우울을 대인관계 발달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가족관계 경험이 자기개념과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또래관계 스트레스 및 우울 취약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우울을 설명함에 있어 개별 요인의 단편적 영향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각 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연결되고, 최종적인 심리적 적응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선행 시점의 가족 및 개인 요인이 이후 시점의

대인관계 경험과 정서적 결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차를 반영한 접근은 청소년 우울의 형성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환경, 개인 내적 자원, 또래관계 경험이 어떠한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을 지지하는 중요한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에게 수용,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외부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으로 기능한다(KavehFarsani, Kelishadi & Beshlideh,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가족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이현지, 이윤주, 2005; 최효식, 연은모, 2025),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등 개인의 내적 자원 및 자율성 발달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경자, 하정희, 2018; 이지영, 2022). 즉, 가족 내에서 존중받으며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개인 내적 자원 형성의 기초가 되는 가족환경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니는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되며(Rosenberg, 1965), 청소년이 일상적 스트레스나 또래관계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개인 내적 자원으로 기능한다(김은진,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Rosenberg, 1965),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박상수, 안귀여루, 2023), 이는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김경호, 2019; Coffey & Warren, 2020).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자기비난적 사고에 취약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공은화, 김원영, 2017; 문은식, 201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정서적 결과 변인이 아니라 가족환경과 정서적 적응을 연결하는 심리적 매개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자원과 관련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또래관계 적응 및 관계적 위험경험과도 관련될 수 있다. 지지적인 가족의사소통을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갈등을 조율하는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학교나 또래관계에서도 보다 적응적인 관계 형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박애선, 2016). 반면, 폐쇄적이거나 비지지적인 가족의사소통 환경은 또래관계 갈등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피해나 또래괴롭힘 피해와 같은 부정적 또래관계 경험에 대한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다(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3; 한은수, 김춘경, 2013). 이러한 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내적 심리자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래관계 맥락에서 경험될 수 있는 관계적 위험을 완충하는 가족환경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적응뿐 아니라, 또래관계 맥락에서의 적응과 취약성에도 관련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대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갈등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단호하게 자신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Garaigordobil & Navarro, 2022).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관계 속에서 위축되거나 회피적 대처를 보이기 쉬우며, 이는 또래관계 장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Delfabbro et al., 2006). 선행연구들 역시 낮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기술 및 대처능력의 부족과 관련되며, 결과적으로 폭력피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Egan & Perry, 1998; van Geel et al., 2018). 또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는 관계적 위축이나 낮은 자기주장성이 피해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또래관계 맥락에서의 취약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Veenstra et al., 2010).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또래관계 상황에서의 보호성과 취약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또래관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장덕희 외, 2021; 전신현, 2018). 본 연구에서의 폭력피해경험은 또래 간 신체적·언어적·관계적 괴롭힘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피해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폭력피해는 전통적인 또래괴롭힘을 넘어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는 형태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폭력피해경험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충격 이외에도 청소년에게 심리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유발하며, 자아개념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준범, 최서연, 2020). 또한 폭력피해경험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서적 부적응과 연결될 수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또래괴롭힘 및 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Forbes et al., 2019; Stapinski et al., 2015; Ttofi et al., 2011). 이러한 점에서 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래관계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폭력피해경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속한 가족환경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과도 관련되는 관계적 위험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의 질과 적응을 형성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지현, 윤혜미, 2017; 조윤영, 배희진, 정현희, 2019).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 수준이 공감 및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 내적 자원을 통해 폭력피해경험을 설명한다는 결과는, 가족환경이 개인 내적 요인을 매개로 또래관계 위험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춘경, 김지선, 2016). 따라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가족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또래관계 대처 방식에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폭력피해경험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폐쇄적이고 비지지적인 가족의사소통 환경은 이러한 대처 기제를 약화시키고, 또래관계에서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폭력피해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한은수, 김춘경, 2013).

종합하면,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자원과 연결되고, 이러한 자원이 이후 또래관계에서의 폭력피해경험과 연결되는 연쇄적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족환경, 개인 내적 자원, 또래관계 위험, 정서적 적응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 경로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우울을 가족관계, 자기개념, 또래관계 경험이 상호 연결되는 발달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대인관계 발달 관점과도 일치한다(Rudolph, Flynn, & Abaid, 200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가족의사소통과 우울 간의 직접적 관계 또는 자아존중감의 단일 매개효과에 주로 초점을 두어,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 위험노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폭력피해경험은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선행 시점의 가족 및 개인 요인이 이후 폭력피해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차를 두고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시점의 가족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중학교 3학년 시점의 폭력피해경험 및 우울 수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을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또래관계 적응의 기초가 되는 가족환경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가족환경과 정서적 적응을 연결하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폭력피해경험을 또래관계 맥락에서 경험되는 관계적 위험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단순히 우울을 설명하는 개인 내적 변인을 넘어, 이후 시점의 폭력피해경험과도 관련되는 심리적 요인임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경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에 이르는 시간차 기반의 단기 종단적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우울과 관련된 가족환경, 개인 내적 자원, 또래관계 위험의 연계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을 통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2-1)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가족의사소통은 폭력피해경험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제15차(2022년)와 제16차(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동일 아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종단 패널조사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15차 자료는 중학교 2학년 시점(T1), 제16차 자료는 중학교 3학년 시점(T2)에 해당하며, 동일한 응답자를 추적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 시점의 가족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폭력피해경험 및 우울 수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15차와 제16차 조사에 모두 응

답한 패널 참여자 중 연구 변인에 결측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총 1,215명($N = 1,215$)이며, 남학생 625명(51.4%), 여학생 590명(48.6%)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의 평균 월령은 171.10개월($SD = 1.64$)로, 이는 약 14.25세에 해당한다.

2. 측정도구

1) 가족의사소통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하고, Olson(2011)이 개정한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 Scale; FCS)의 한국형 척도(김영식 등, 2012)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이며, 문항 예시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의사소통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illennium Cohort Study(MCS, 2012)에서 아동의 연령에 맞도록 수정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5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폭력피해경험

본 연구에서는 폭력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Olweus(1996)의 Revised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3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헐뜯,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 “학급 친구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없다(1점)’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피해경험을 다수 경험하고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원자료에서 ‘없다’를 0점으로 재코딩하고, 피해 빈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산출하였다. 이후 폭력피해경험 변수의 편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제곱근 변환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폭력피해경험 척도의 Cronbach's α 는 .77이다.

4)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2025)에서 사용한 허만세 외(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고, 문항의 예로는 “기분이 우울했다.”, “슬픈 기분이 들었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극히 드물다(1점)’에서 ‘거의 대부분(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는 .71이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및 폭력피해경험과 관련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김

재업, 정운경, 2007), 폭력피해경험의 양상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오미경 등, 2013; 전신현, 2018).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어머니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될 수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가족 내 의사소통 환경과 청소년의 발달적 적응을 이해할 때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권경자, 하정희, 2018). 또한 가정경제수준 역시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관련되는 배경 요인으로 보고되어,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손병덕,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성별은 더미변수로, 가구소득은 자연로그 변환값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한국아동패널의 15차년도 조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조사되었으며, 총 1,29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사를 완료하였고, 16차년도 조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조사되었으며, 총 1,25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사를 완료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25). 이 연구에서는 15차년도와 16차년도 모두 응답한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5차년도 및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변인의 분포를 확인하고,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연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후 가족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 4.2(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으며 재표집 횟수는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한편 폭력피해경험 변수는 1점에 집중된 분포를 보여 왜도와 첨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규성 검토 기준과 관련하여 Kline (2016)은 왜도 절댓값이 3을 초과하거나 첨도 절댓값이 10을 초과할 경우 정규성 가정의 위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폭력피해경험 변수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 분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분포의 편포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곱근 변환(cube root transformation)을 실시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잠재적 교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구소득은 자연로그 변환값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예비분석으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r = .47,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폭력피해경험($r = -.15, p < .01$) 및 우울($r = -.27,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폭력피해경험($r = -.14, p < .01$) 및 우울($r = -.36, p < .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경험은 우울($r = .28,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통제변인 중 어머니 교육수준은 가족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 = .06, p < .05$), 그 외 주요 변인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은 주요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1. 가족의사소통, 자아존중감, 폭력피해경험, 우울 간의 상관관계

(N = 1,215)

	1	2	3	4	5	6
1. 가족의사소통(T1)	-					
2. 자아존중감(T1)	.47**	-				
3. 폭력피해경험(T2)	-.15**	-.14**	-			
4. 우울(T2)	-.27**	-.36**	.28**	-		
5. 어머니 교육수준	.06*	.04	-.02	.03	-	
6. 가구소득	-.01	.01	-.03	-.02	.03	-
평균	3.91	3.13	.11	1.52		
표준편차	.67	.84	.24	.44		
최솟값	1.00	1.00	.00	1.00		
최댓값	5.00	4.00	1.35	3.91		
왜도	-.54	-.42	2.13	1.49		
첨도	.78	.77	3.70	2.97		

주1. 통제변인으로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포함하였음.

주2. 폭력피해경험은 세계평균 변환값을 사용하였음.

주3. 가구소득은 자연로그 변환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1$.

2.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사소통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37, p < .001$). 즉, 가

표 2. 가족의사소통과 우울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N = 1,215)

경로	B	β	SE	t
가족의사소통(T1) → 자아존중감(T1)	.37***	.46	.02	18.25
성별 → 자아존중감	-.12***	-.11	.03	-4.31
어머니교육수준 → 자아존중감	.01	.01	.01	.55
가구소득 → 자아존중감	.01	.02	.01	.67
$F = 89.44^{***}, R^2 = .228$				
가족의사소통(T1) → 폭력피해경험(T2)	-.04**	-.10	.01	-3.11
자아존중감 → 폭력피해경험(T2)	-.05***	-.11	.01	-3.37
성별 → 폭력피해경험(T2)	-.07***	-.16	.01	-5.53
어머니교육수준 → 폭력피해경험	-.004	-.01	.01	-.48
가구소득 → 폭력피해경험	-.003	-.02	.01	-.69
$F = 13.26^{***}, R^2 = .052$				
가족의사소통(T1) → 우울(T2)	-.07***	-.12	.02	-3.98
자아존중감(T1) → 우울(T2)	-.22***	-.27	.02	-9.23
폭력피해경험(T2) → 우울(T2)	.43***	.24	.05	8.93
성별 → 우울	.07**	.08	.02	3.02
어머니교육수준 → 우울	.02*	.05	.01	1.97
가구소득 → 우울	-.003	-.01	.01	-.46
$F = 51.49^{***}, R^2 = .204$				

주1. 통제변인으로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포함하였음.

주2. 폭력피해경험은 세계평균 변환값을 사용하였음.

주3. 가구소득은 자연로그 변환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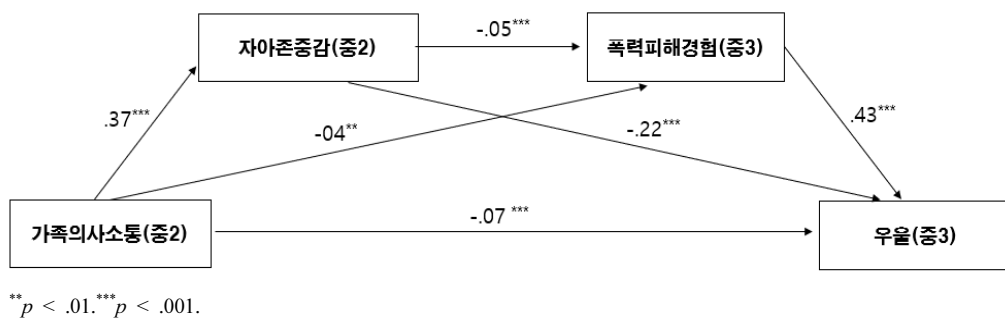


그림 1. 가족의사소통과 우울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족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지지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둘째, 가족의사소통은 차년도 폭력피해경험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고($B = -.04$, $p < .01$), 자아존중감은 차년도 폭력피해경험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B = -.05$, $p < .001$). 셋째, 가족의사소통, 자아존중감, 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가족의사소통은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B = -.07$, $p < .001$)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B = -.22$, $p < .001$). 폭력피해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 = .43$, $p < .001$).

가족의사소통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재표집 횟수는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8$, 95% CI[-.106, -.058])와 가족의사소통이 폭력피해경험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2$, 95% CI[-.026, -.004])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는 각각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즉,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차년도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의사소통은 차년도 폭력피해경험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차년도 폭력피해경험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경로($B = -.01$, 95% CI[-.014, -.003])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을 매개로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2개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

표 3. 총효과와 간접매개효과

($N = 1,215$)

	<i>B</i>	<i>Boot S.E</i>	<i>Boot LLCI</i>	<i>Boot ULCI</i>
총효과	-.18	.02	-.213	-.143
직접효과(가족의사소통(T1) → 우울(T2))	-.07	.02	-.112	-.038
가족의사소통(T1) → 자아존중감(T1) → 우울(T2)	-.08	.01	-.106	-.058
가족의사소통(T1) → 폭력피해경험(T2) → 우울(T2)	-.02	.01	-.026	-.004
가족의사소통(T1) → 자아존중감(T1) → 폭력피해경험(T2) → 우울(T2)	-.01	.003	-.014	-.003

주1. 통제변인으로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포함하였음.

주2. 폭력피해경험은 세계평균 변환값을 사용하였음.

주3. 가구소득은 자연로그 변환값을 사용하였음.

주4. Bootstrap 5,000회, 95% 신뢰구간 제시.

학교 2학년 시기의 가족의사소통을 선행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경험을 매개요인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을 결과요인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우울 및 가족의사소통과 관련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 시기의 가족의사소통은 1년 후 우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차년도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이현지, 이윤주, 2005; 최효식, 연은모, 2025)와 일치한다. 특히 또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는 청소년 중기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여전히 정서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한다는 점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가족 맥락이 정서적 안정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다만 가족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12$), 그 효과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결과는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 우울을 단독으로 강하게 설명한다기보다, 다양한 발달적 요인 중 하나의 보호적 가족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에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는 우울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인 내적 보호기제임을 재확인시켜준다. 선행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국길숙, 이미숙, 2003; 최효식, 연은모, 2025), 이는 다시 우울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가 보고된 바 있으며(KavehFarsani et al., 2020), 부모 관련 가족환경 요

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중학생의 우울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한 문은식(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차 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가족환경이 개인 내적 자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달적 경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특히 세 가지 간접효과 중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은 가족의사소통과 우울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경로가 다른 간접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의사소통은 이후 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폭력피해경험 수준은 낮았으며, 폭력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피해경험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족환경과 심리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 감독 등이 개인 내적 자원을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춘경, 김지선, 2016; 한은수, 김춘경,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확장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자체가 폭력피해경험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점은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장덕희 외, 2021; 전신현, 2018; Hochstetler et al., 2014). 다만 폭력피해경험과 우울은 모두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측정되었으므로, 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선행한다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중학교 3학년 시점의 폭력피해경험과 우울 수준 간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거쳐 이후 폭력 피해경험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경로를 보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다음 해 폭력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개인의 내적 자원이 이후의 또래관계 경험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안정적이고 단호한 자기표현을 보이며 부정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Garaigordobil & Navarro, 2022)와,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기비난과 위축, 소극적 대처를 통해 또래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연구(Delfabbro et al., 2006)를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기술과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폭력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연구(정하은, 전종설, 2012; Egan & Perry, 1998) 역시 본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가족의사소통을 경험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보다 적응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폭력피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순차적 간접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므로, 이 경로를 강한 효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족환경, 개인 내적 자원, 또래관계 위험이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발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환경, 개인 내적 자원, 사회적 관계경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발달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또래 관계에서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폭력피해 가능성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낮은 우울 수준과 관련되는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발달을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Rudolph, Flynn과 Abaied(2008)의 대인관계 발달 관점에서 볼 때, 가족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자기개념과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개인 내적 자원은 또래관계 경험 및 정서적 적응과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며, 가족환경-개인 내적 자원-또래관계 위험-정서적 적응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경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족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폭력피해경험과 우울은 각각 동일 시점에서 측정되었으므로, 해당 경로의 크기를 해석할 때에는 측정 시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도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폭력피해와 같은 또래관계 위험경험이 우울 수준과 의미 있게 연결됨을 시사한다. 더불어 폭력피해와 같은 또래관계 위험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은 사회적 관계 경험이 정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족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관계경험이 개인 내적 자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피해경험과 같은 가족외적 사회적 관계경험이 개인 내적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자원을 강화하는 개입과 함께, 가족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접근이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약 1년의 변화를 분석한 단기 종단 연구에 해당한다. 향후에는 장기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의사소통의 지속적 관련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울은 선행 시점의 우울 수준이 이후 시점의 우울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 변인이므로, 초기 우울 수준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결과 해석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시점의

우울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아, 주요 변인들이 중학교 3학년 시점의 우울 수준과 관련되는 경로를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초기 우울 수준을 통제한 분석을 통해 가족의사소통, 자아존중감, 폭력피해경험이 이후 우울 수준과 갖는 고유한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폭력피해경험과 우울은 모두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측정되었으므로, 두 변인 간의 방향성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폭력피해경험을 우울과 관련되는 또래관계 위험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이후 폭력피해경험을 보일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 시점 이상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등을 적용하여 폭력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양방향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방법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가족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간 지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보고를 함께 수집하여 다원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으나, 청소년의 우울 및 폭력피해경험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및 환경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애착, 또래지지, 학교환경 등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통합적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의사소통, 자아존중감, 폭력피해경험, 우울 간의 관계를 2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차를 반영한 경로로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과정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폭력피해경험과 관련되는 심리적 요인임을 확

인함으로써 개인 내적 자원이 또래관계 경험과 연결되는 발달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중기에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여전히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부모교육 및 가족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폭력피해경험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실제 또래관계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공은화, 김원영 (2017). 청소년 우울 영향 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61-76.
<https://doi.org/10.21097/ksw.2017.08.12.3.61>
-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5). 제21차(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청.
- 국길숙, 이미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3(1), 89-107.
- 권경자, 하정희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 509-519. <https://doi.org/10.5762/KAIS.2018.19.3.509>
- 김경호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3개 시점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21(2), 69-96.
<https://doi.org/10.19034/KAYW.2019.21.2.03>
- 김도연, 정현희 (2023). 청소년 우울 변화유형의 예측요인 및 성인 초기 삶의 만족도 차이. *청소년문화포럼*, 74, 37-65. <https://doi.org/10.17854/ffyc.2023.04.74.37>
- 김영식, 선우성, 김병수, 박훈기, 옥선화, 차동혁 (2012).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41-258.
- 김은진 (2015).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2), 239-266. <https://doi.org/10.14816/sky.2015.26.4.239>
- 김준범, 최서연 (2020). 피해와 우울의 악순환: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의 종단적 매개로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50, 1-24. <https://doi.org/10.20993/jSSW.50.1>
- 김지신, 안지영, 오미경 (2016). 아동의 또래괴롭힘 방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동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 99-127.

- <https://doi.org/10.21509/KJYS.2016.01.23.1.99>
 김춘경, 김지선 (2016). 초기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분석 - 부모애착, 부모감독, 공감,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399-418.
<https://doi.org/10.15703/kjc.17.3.201606.399>
 문은식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1(2), 23-36.
 박병선,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배성우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72>
 박상수, 안귀여루 (2023).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30(6), 339-366. <https://doi.org/10.21509/KJYS.2023.0.6.30.6.339>
 박애선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97-106.
<https://doi.org/10.21097/ksw.2016.02.11.1.97>
 박지현, 윤혜미 (2017). 가족의사소통유형이 남, 여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9, 149-175.
<https://doi.org/10.20993/jSSW.39.7>
 손병덕 (2005). 일반 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 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3). 아동의 공감능력, 모와의 의사소통 및 친구지향이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8), 277-301.
 우수정 (2022).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연구*, 14(4), 43-56.
<https://doi.org/10.36431/JPE.14.4.3>
 육아정책연구소. (2016). *한국아동패널(PSKC) 제 8차~16차 조사 데이터 사용 지침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24). *한국아동패널 15차년도 자료[데이터 파일과 코드북]*. <https://panel.kicce.re.kr>에서 2026년 3월 1일 인출
 육아정책연구소. (2025).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자료[데이터 파일과 코드북]*. <https://panel.kicce.re.kr>에서 2026년 3월 1일 인출
 이순희, 허만세 (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 비행경험 유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4), 251-289.
<https://doi.org/10.15709/hswr.2018.38.4.251>
 이지영 (2022).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학회지*, 3(2), 71-83.
<https://doi.org/10.51613/JKYCA.2022.3.2.71>
 이현지, 이윤주 (2005).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이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97-209.
 장덕희, 윤현자, 신현진 (2021). 청소년 폭력 피해경험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10), 137-160.
<https://doi.org/10.21509/KJYS.2021.10.28.10.137>
 전신현 (2018). 청소년 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및 친구관계의 조절효과: 성별에 따른 두 대립가설의 검증. *피해자학연구*, 26(3), 171-191.
<https://doi.org/10.36220/kjv.2018.26.3.171>
 정하은, 전종설 (201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조운영, 배희진, 정현희 (201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양육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 내 대인관계의 다중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7(4), 673-704. <https://doi.org/10.25152/ser.2019.67.4.673>
 조정아 (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3), 167-192.
 최효식, 연은모 (2025). 청소년, 어머니, 아버지가 지각한 가족의사소통 잠재집단 탐색 및 영향 요인 검증: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6(8), 98-108.
<https://doi.org/10.5762/KAIS.2025.26.8.98>
 한은수, 김춘경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탄력성, 또래괴롭힘 간의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20(1), 177-197.
 허만세, 이순희, 김영숙 (2017). 한국어판 CES-DC 11의 개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255-285.
<https://doi.org/10.24301/MHSW.2017.03.45.1.255>
 Abela, J. R., & Hankin, B. L. (2008).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 R. Z. Abela & B. L. Hankin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35-78). New York, NY: Guilford Press.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https://doi.org/10.2307/1129732>
 Coffey, J. K., & Warren, M. T. (2020). Comparing adolescent positive affect and self-esteem as precursors to adul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Motivation and Emotion*, 44(5), 707-718.
<https://doi.org/10.1007/s11031-020-09825-7>
 Delfabbro, P., Winefield, T., Trainor, S., Dollard, M., Anderson, S., Metzger, J., & Hammarström, A. (2006). Peer and teacher bullying/victimization of South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Child Psychiatry*

- and Human Development, 36, 345-359.
<https://doi.org/10.1348/000709904X24645>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Fergusson, D. M., & Woodward, L. J. (2002). Mental health, educational, and social role outcomes of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3), 225-231. <https://doi.org/10.1001/archpsyc.59.3.225>
- Forbes, M. K., Fitzpatrick, S., Magson, N. R., & Rapee, R. M. (2019). Depression, anxiety, and peer victimization: Bidirectional relationships and associated outcomes transition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4), 692-702. <https://doi.org/10.1007/s10964-018-0922-6>
- Garaigordobil, M., & Navarro, R. (2022). Parenting styles and self-esteem in adolescent cybervictims and cyberaggressors: self-esteem as a mediator variable. *Children* 2022, 9(12), 1795. <https://doi.org/10.3390/children9121795>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Vol. 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chstetler, A., DeLisi, M., Johnson, G. J., & Johnson, W. R. (2014). The criminal victimization-depression sequela: Examining the effects of violent victimization on depression with a longitudinal propensity score design. *Crime & Delinquency*, 60(5), 785-806. <https://doi.org/10.1177/0011128710382261>
- KavehFarsani, Z., Kelishadi, R., & Beshlideh, K. (2020). Study of the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and function, and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obese girl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1), 39. <https://doi.org/10.1186/s13034-020-00345-3>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CS. (2012).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Retrieved July 20, 2021, from https://cls.ucl.ac.uk/wp-content/uploads/2017/07/MCS5_MS_Child-Self-Completion-Questionnaire_CORE_ESNI_FINAL_PRINT.pdf
- Olson, D. H. (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7(1), 64-80. <https://doi.org/10.1111/j.1752-0606.2009.00175.x>
- Olweus, D. (1996). Revised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https://doi.org/10.1037/t09634-00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olph, K. D. (2008). Developmental influences on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in depressed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3), 673-679. <https://doi.org/10.1037/0021-843X.117.3.673>
- Rudolph, K. D. (2009).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adolescent depression. In S. Nolen-Hoeksema & L. M. Hilt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pp. 377-418). New York: Routledge.
- Rudolph, K. D., Flynn, M., & Abaied, J. L. (2008).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theories of youth depression. In J. R. Z. Abela & B. L. Hankin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79-102).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Stapinski, L. A., Araya, R., Heron, J., Montgomery, A. A., & Stallard, P. (2015). Peer victimization during adolescence: Concurrent and prospective impact on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nxiety, Stress, & Coping*, 28(1), 105-120. <https://doi.org/10.1080/10615806.2014.962023>
- Ttofi, M. M., Farrington, D. P., Lösel, F., & Loeber, R. (2011). Do the victims of school bullies tend to become depressed later in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3(2), 63-73. <https://doi.org/10.1108/17596591111132873>
- van Geel, M., Goemans, A., Zwaanswijk, W., Gini, G., & Vedder, P. (2018). Does peer victimization predict low self-esteem, or does low self-esteem predict peer victimization? Meta-analyses on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al Review*, 49, 31-40. <https://doi.org/10.1016/j.dr.2018.07.001>
- Veenstra, R., Lindenberg, S., Munniksma, A., & Dijkstra, J. K. (2010). The complex relation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cceptance, and rejection: Giving special attention to status, affection, and sex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81(2), 480-486.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411.x>